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245>

JCCT 2023-3-30

<거울속으로>와 <미러>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Into the Mirror> and <Mirrors>

이 협*

Hyub Lee*

요약 이 논문은 국내 영화 <거울속으로>와 리메이크인 <미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두 영화는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와 실제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21세기 초 국내 영화의 경향을 예시한다. 기본적인 설정과 플롯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동기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거울속으로>는 원혼설화의 서사전통을 따르는데, 권선징악의 구도에 사회 비판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거울을 통한 악령의 사악한 작용이 지배적인 <미러>는 서양의 공포영화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 리메이크는 동양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서사를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서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한 방식을 예시해준다.

주요어 : 거울, 원혼설화, 악령, 사회 비판, 권선징악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Into the Mirror> and its remake version <Mirros>. Both feature the discrepancy between one and reflected image on mirror, which was a trend in the early 21th century. Although their backdrops and plots are simila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ivation and others. Following the tradition of grievance redressing tale, it combines social criticism with the concept of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Foregrounding the evil force of ghost through mirrors, <Mirrors> follows the Western tradition of horror movies. This remake exemplifies a way of reinterpreting and recreating an East-based narrative from a Western viewpoint where Christianity predominates.

Key words : mirror, grievance redressing tale, ghost, social criticism,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1. 서론

21세기 초부터 국산 영화나 드라마가 해외에서 리메이크 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시작되었고 최근에 올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되어서 흥행에도 성공한 <수상한 그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류에 힘입은 이러한 리메이크 경향은 국내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주로 한국의 원작과 리메이크 된 작품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리메이크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 보면 동양문화권에서 리메이크 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리메이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정희원,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단독 저자)
접수일: 2023년 1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0일

Received: January 31, 2023 / Revised: March 1, 2023

Accepted: March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hyublee@chosun.ac.kr

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Chosun Univ, Korea

개별적인 작품의 리메이크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비록 세간의 주목을 덜 받아온 작품이더라도 리메이크 양상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산 영화 <거울속으로>(2003)가 외화 <미러>(Mirrors)(2008)로 리메이크 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영화 모두 제명이 나타내듯이 거울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김성호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거울속으로>는 유지태가 주연을 맡아서 거울에 비치는 분열된 자아를 가진 인물을 연기했다. <Mirros>는 당시 호러 무비의 새로운 귀재로 평가 받던 알렉산드르 아야(Alexander Jaja)가 감독을 맡았다. 동양권의 공포영화는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로 제작되는 주요한 장르이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그러한 경향이 강해졌다.

리메이크이므로 기본적으로 설정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리메이크할 때에 통합체적 구조는 유지하면서 계열체적 구조만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리메이크되는 문화에 적합하게 변형시키는 전략이다 [1]. 감독인 아야 역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조 우티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원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레고리 레바쉬(Gregory Levasseur)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아야는 “논리와 공포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It is completely different in logic and scares”) [3]고 간략히 언급한다. 리메이크 버전이 서사를 끌어가는 주요 요인에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악한 세력과의 대립구조가 서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선악의 주체가 다르다. 이는 <미러>에서 살해가 발생하는 동기가 <거울속으로>와는 다르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또한 <미러>는 <거울속으로>보다 공포의 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잔혹한 장면과 시청각적 표현의 차이에 크게 기인한다. 아야는 사이닝과 같은 맥락에서 재창조했다고 덧붙인다. 미국의 호러 영화의 흐름 속에서 재창조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 설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특히 영화가 제작된 21세기 초 무렵의 국내 영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06년에 제작된 <가발>에서도 거울에 비친 얼굴과 기차의 창에 비친 얼굴이 원래 여자인물의 얼굴과 다른 장면이 발견된다. 2000년도에 제작된 <배니싱 트윈>의 포스터

에서는 거울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 실제인물과 다르다. 이러한 경향은 거울의 수많은 상징적 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오랜 동안 거울에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져 왔다. 거울은 마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며, 전도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문이다 [4].

또한 반드시 거울은 아닐지라도 초상화에 비친 모습이 실제와 다른 설정은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두 작품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기원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우선 영화에 한정지어서 보면, <거울속으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실제 인물과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의 차이는 1945년에 <밤의 죽음>(Dead of Night)의 한 파트로 영국의 로버트 해머(Robert Hammer)가 감독한 <귀신이 나오는 거울>(The Haunted Mirro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 조운(Joan)이라는 젊은 여성은 결혼할 예정인데 신혼집 용으로 오래된 거울을 구매한다. 그녀의 약혼남 피터(Peter)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빅토리안 시대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본다. 부인은 남편이 보는 것을 볼 수 없는데, 남편의 실제 인성이 변하는 것을 알아챈다. 결혼식 후에는 거울 속의 방 이미지가 사라지고 그들의 관계도 안정된다. 조운이 집을 비운 한 주 동안, 피터는 점점 초조해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이상해진다. 고가구 판매상으로부터 조운은 그 거울이 1840년대에 부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남자의 집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듣는다. 피터가 조운을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자, 그녀는 남편이 거울에서 보던 것을 역시 보게 되어 거울을 깨트려버린다. 이후 남편은 정상으로 회복된다.

사실 이 고전 영화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변모하는 모티브는 시대적으로 앞선 문학 작품에서 차이점이 조금은 있지만 찾을 수 있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에서는 주인공 그레이가 악마에 영혼을 팔자, 그 자신은 얼굴은 늙지 않으며 안 변하는 반면에, 암실에 감추어 놓은 초상화의 얼굴이 사악하게 변해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이 죽자 그림은 회복되고 주인공의 얼굴은 늙은 얼굴로 변해있었다. 이 소설은 알버트 르윈(Albert Lewin)이 1945년에 동명으로 영화화했다.

II. <거울속으로>와 <미러>의 시놉시스

우선 두 작품의 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울 속으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년 전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한 후 재개장을 앞둔 드림피아라는 백화점에서 기괴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이름에서부터 무의식의 작용을 암시하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목을 칼로 직접 그어 자살한 듯 보이는 여자, 귀에서 머리까지 불펜으로 찢려 관통 당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죽어있는 남자,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손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다.

이 백화점의 보안실장인 우영민은 1년 전 형사 시절에 실수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다. 그는 이 일련의 살인 사건들이 특정한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한다. 연쇄살인의 중심에는 사망했던 백화점 직원 이정현이 있다. 출납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정현을 살해하고 은폐한 사람은 최상기 이었다. 총무과 사람들이 최 이사와 공모하여 없는 시체를 자신으로 확인해준 것에 대해 이정현이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서 복수를 한 것이었다. 발작 상태가 일어난 또다른 총무처 직원 임준석은 거울 속에서 여자가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정현의 개입을 암시한다.

사건 해결의 단서를 보다 결정적으로 우영민에게 제공하는 인물은 정신병원 수감 경력이 있는 동생 이지현이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거울들이 걸려있는 방에서 동생 이지현은 언니가 거울 속에 있다고 말한다. 이지현은 이정현의 일종의 짝패(double)이다.

최상기를 의심하는 우영민은 이 정현의 장부를 가지고 있다며 최상기를 이벤트 홀로 불러낸다. 이정현의 발신음을 듣고 이지현과 우영민은 거울을 깨서 안에 숨겨놓은 시체를 발견한다. 최상기가 나타나고, 우영민, 이지현과 최상기의 격투가 이벤트 홀에서 벌어진다. 최상기가 쏜 총에 맞은 우영민은 거울 속으로 쓰러진다. 거울 속에서 우영민의 두 개의 갈등하는 자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영민은 또다른 자아를 죽이고 깨어나서 다시 최 이사와 싸운다. 계속되는 싸움에 우영민이 분리하는가 싶은 그때 거울 속에서 이정현이 걸어 나와 최 이사를 죽인다.

그 후 우영민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백화점 사장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엔딩에서, 병원에서 퇴원한 우영민에게 세상은 거꾸로 보인다. 마지막 장면엔 우영민은 거울에 있는데 세상에 없다.

이제 <미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도망치던 경비원 게리 루이스가 방 속의 거울에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직 경찰 벤 카슨이 화제로 폐허가 된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메이플라워라는 명칭의 백화점의 야간 경비 일을 시작한다. 건물에는 여전히 상점의 수많은 거울이 있고 그는 환영과 같은 모습을 거울에서 보게된다. 이전의 야간 경비원이었던 루이스의 지갑을 발견하는데, 에세커(Esseker)라고 적힌 메모가 있다. 에세커는 백화점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정신병원의 환자 안나 에세커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에세커는 열두 살 때에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자살 중에 죽었다고 간주되었지만, 실제로는 직전에 병원에서 퇴원했었다.

벤은 거울의 이미지가 실제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추측한다. 벤이 조사하는 동안 그의 여동생 엔지(Angie)는 거울의 이미지가 스스로 손으로 턱을 잡고 입을 벌리며 찢어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의 아들 마이클(Michael)의 반사된 이미지 역시 실제 마이클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부인 에이미(Amy)가 발견한다. 부부는 집에 반사되는 면들을 모두 녹색 페인트로 칠해버린다. 그녀는 딸 데이지(Daisy)마저 거울 속 이미지에 의해 위협을 받자 반사면이 없는 방안으로 대피시킨다.

그림 1. 마이클의 실제와 거울의 이미지



Figure 1. The real Micheal and his image on mirror

에세커는 어렸을 때 폭력적이어서 통제할 수도 없었는데, 심각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었다. 성 매튜 병원의 케인 박사는 그녀를 치료하려고 거울로 둘러싸인 방의 의자에 놓아두었었다. 그녀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거울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래서 그녀는 거울이 금지된 수녀원인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수녀원에서 그녀는 자신이 거울에 갇힌 악령에 사로잡혔고 그녀를 통해 악령이 세상으로 나오려 한다고 벤에게 설명한다.

벤은 에세커를 메이플라워 백화점에 있는 예전의 거울 치료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놓아둔다. 그때 집에서 마이클은 물의 반사면에 의해 갑자기 바닥의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 익사하기 시작한다. 거울방에서 에세커가 기도를 하자 악마가 풀려나면서 건물이 흔들리더니 백화점의 모든 거울이 폭발한다. 에세커는 죽고 마이클도 물에서 빠져나온다. 에세커의 몸 속에 들어간 악령이 벤을 공격하자 그는 가스관에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켜서 그녀를 죽인다. 건물이 무너져서 벤도 갇힌다. 잔해 속에서 벤이 빠져나오지만 세상은 거울처럼 좌우가 뒤바뀌어 있고, 거울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의 손바닥 자국만이 실제 세상에서 보인다.

III. 권선징악과 악령에 대한 공포와의 차이

두 작품의 설정과 플롯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두 작품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차이점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다. 일견 표면적으로는 주요한 차이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간략하게 리뷰했던 작중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대조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반사되는 이미지에 의해 살해당하는 인물들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거울속으로>에서는 백화점 직원들이 살해당하는데 죽은 직원들의 공통점은 4년 전에 백화점이 개관할 때에 총무처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러>에서는 주로 벤의 가족들이 공격을 당한다. 이처럼 공격을 받는 희생자들의 범주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공격을 받는 양상과 원인 역시 다르다.

사망한 백화점 직원들은 몇 년 전에 죽은 이정현과 연관이 있다. 이정현은 출납담당으로 전일성 사장의 돈장구였다. 이정현은 이벤트 홀 공사를 하던 중에 인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유일하게 죽었다. 그러나 이정현의 사체 처리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사체가 타서 실제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사체 입증 서명을 한 사람들이 모두 총무처 직원들이었다.

그림 2.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실제와의 차이



Figure 2. Difference between real being and image reflected on mirror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살해당하는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화장실에서 죽은 여직원의 경우, 저녁 시간에 텅 빈 매장을 걷고 있다가 유리 진열장 속의 워크맨을 훑치는 설정이다. 그녀는 은밀한 공간인 화장실로 들어가서 홀로 거울 앞에 선다. 핸드백 속의 물건이 떨어져서 잡으려고 몸을 굽히는데 거울 속의 이미지는 그대로 서 있다. 거울 속의 이미지가 날로 목을 베자 여자의 목이 베어진다. 절도를 범한 그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망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이어진다. 불펜으로 죽은 남자의 경우 여직원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훑쳐본다. 그가 사다리에서 훑쳐보는 동안 거울에서 혼령이 나온다. 사다리 옆에 놓아두었던 남자의 가방이 어느새 거울에 붙어있고, 거울에는 가방이 비친다. 그가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양쪽으로 거울이 붙어있다. 서로 마주보며 비추는 두개의 거울은 이미지를 무한하게 재생산 한다. 거울 속의 남자의 등의 이미지가 뒤 돌아 선다. 불이 잠시 꺼지고 붉은 조명으로 바뀌는데 이는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그가 귀를 불펜으로 후비자 불펜이 귀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는 죽는다.

위의 2 경우 모두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후에 살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사되는 이미지가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사되는 이미지의 변화는 그들이 실체를 은폐하고 위장한 채 살아가는 위선에 대한 조소적인 응징이다.

반사되는 이미지에 의한 위협과 살해는 <미러>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따라서 괴기스러운 공포 역시 더욱 심하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백화점 여직원과 유사한 방



그림 3. 경비원과 다른 거울의 이미지
Figure 3. Image on mirror different from the guard

식으로 살해당한다. 경비원은 지하철역을 뛰어다니다가 탈출할 수 없는 방에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한다. 그의 반사된 이미지는 파편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을 자른다. 실제 경비원의 몸에도 상처가 발생하며 그는 사망한다. 벤의 여동생 앤지 역시 유사하게 거울 속 이미지에 의해 살해된다. 거울속의 이미지는 스스로 턱을 잡고 천천히 입을 벌려 찢으면서 앤지를 살해한다. 기본적으로 경비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이다.

이처럼 살해 방식이 <거울속으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살해 동기는 분명하지 않다. <거울속으로>에서 처럼 권선징악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경비원과 앤지 모두 죄악에 대한 단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피해 대상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앤지 외에도 아들 마이클이 반사광에 의해 바닥의 물속으로 끌려들어가며 의사의 위기에 처하며, 딸 데이지 역시 잠재적인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이 악령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다.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선한 가족과 악령간의 대립구도이다. 이정현과 악행을 저지른 비리 세력과의 권선징악적인 대립구도가 아니다.

살해 동기에 있어서의 차이는 살해의 원인인 존재의 차이에 기인한다. 원혼이 된 이정현은 원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이정현의 복수는 권선징악의 전통을 따르는 것인 반면에, 악령의 살해는 다르다. 악령은 기독교 정신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가족 공동체를 위협한다. 서양 문학과 영화에서는 악령이 구체적인 원한관계가 없어도 악행을 저지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자주 다루어졌던 악령의 모티브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서양의 문학과 영화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2 영화의 대립구도는 모두 결말부에서 완결된다. 결말에서 이정현의 동생 이지현이 언니를 대신하여 최상기를 단죄한다. 억울했던 이정현의 한이 해소되면서

악행에 대한 단죄와 함께 정의구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권선징악과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부되어 있다.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악령에 대한 단죄가 성공한다. 에세키는 단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지현과 같은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악의 존재를 단죄하고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거울속으로>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러>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악령이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게 사회적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원래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벤의 가족에 악령이 끼친 악행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사회비판적인 시각은 결여된 반면에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령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 악령은 기독교적인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공포 영화 중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5].

IV. 결 론

원작과 리메이크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영화가 서양 영화로 리메이크 되면서 서양 문화의 전통 속으로 흡입되어져서 변천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차이점들은 영화계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미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직장 생활의 비중이 크며,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 등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반면에 미국 사회는 어느 서양 사회와 마찬가지로 보다 가족 중심의 사회이다.

국내 관객에게 호소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미국 관객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대중 영화는 광범위한 영역의 관객들의 공유되는 취향을 만족시키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대중과 문화의 산물이다 [6]. 원작은 사회비리에 대한 대중의 반감에 호소하는 반면에, <미러>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잠재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소환된 것이다.

References

- [1] S. Yoo, "A Comparative Study on Cultural Patterns in Original Film and Remake Film: Focused on Korean film, <IL MARE> and American film, <THE LAKE HOUSE>," *Media and Theatrical Art*, Vol, 7, No. 3. p. 90, 2012.
- [2] J. Utichi, "Exclusive: Alexandre Aja Talks Mirrors and Piranha 3D," Rotten Tomatoes, October 10, 2008. <https://editorial.rottentomatoes.com/article/exclusive-alexandre-aja-talks-mirrors-and-piranha-3d/>
- [3] B.A. Orange, "EDIT BAY VISIT: We Look Deep Into Alexandre Aja's Mirrors," Movieweb, April 18, 2008. <https://web.archive.org/web/20080816012745/http://www.movieweb.com/news/29/28129.php>
- [4] J.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NYRB Classics, 2020.
- [5] M. Lee, "Study on the Asian horror movies remake by Hollywoo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p 30-32, 2012.
- [6] G. Jowett, and J. Linton, *Movie as Mass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s, 1989.

| |
|--|
|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